충격 민주, 주류-비주류 갈등 격화 예고

한나라 예상밖 압승…4대강·개헌론 탄력 받을 듯

'왕의 남자' 이재오 복귀 與 권력구도 재편 가능성

7·28 재보선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애초 8석 중 '5석 확보면 본전'이라는 상황에도 못 미치는 3석을 지키는데 그쳐 6·2지방선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석만 확보해도 성공'이라는 애초 기대를 웃도는 5석을 확보해 6·2 지방선거 참패의 그늘에서 벗어남은 물론 향후 정국 운영에 숨통을 트게 됐다.

◇한나라당 완승과 민주당 참패=재보선 기간 중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5~6석, 최대 8석 석권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였다. 더욱이 여권 내 권력 투쟁 및 민간인 사찰 논란 외에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젊은 층 비하 발언 등 각종 선거 호재가 민주당의 승리를 확신케 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민심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한 민주당을 심판했다. 결국,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여권 정국 운영 탄력=이같은 재보선 결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여권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권 주류에서 추진하는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조만간 있을 내각 개편에 있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기존 인사 스타일이 유지돼 대폭적인 개편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 신임 안상수 대표 체제가 착근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참패를 극복한 안상수 체제는 실제 공과를 떠나 친박과 비주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재오 전 의원의 화려한 복귀로 여권 내 권력 구조 재편을 점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복귀는 친이·친박 갈등의 확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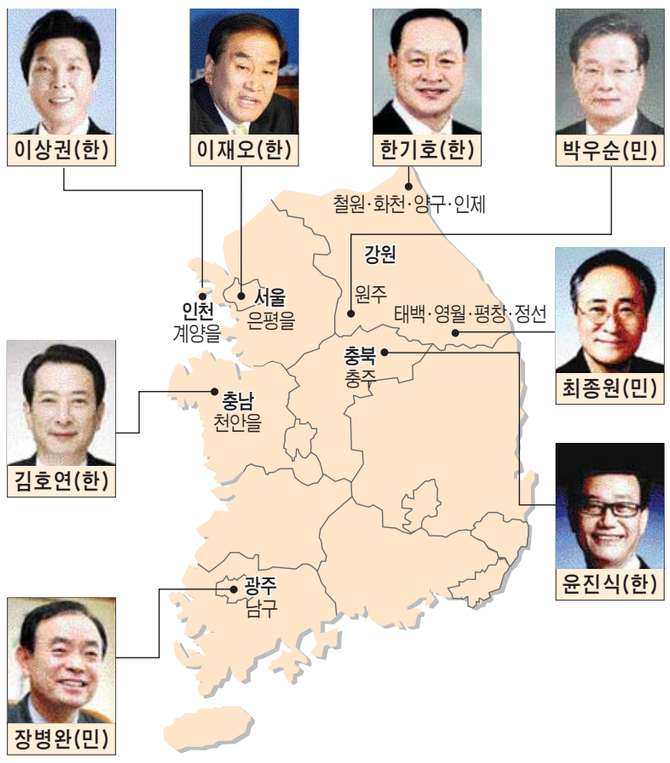
◇민주당 정세균 체제 타격=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정치인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다. 지난 6·2 지방선거 승리의 최대 수혜자가 두 달도 안돼 상반된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비주류 측에서는 당장 정 대표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준비기구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도 주류 측에서 의도한 대로 흘러가기는 어렵게 됐다.

나아가 9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판세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초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간 치열한 선두 경쟁을 예상했지만 정 대표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손 전 대표의 정치 재개가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정 대표 체제가 지난 지방선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당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전당대회에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28 재보선 당선자



"인맥 총동원 예산 따오고 호남 인사 소외 없애겠다"

■남구 장병완 당선자

"남구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 광주와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완(5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28일 "남구민들이 위기의 남구를 살리기 위해 투쟁 정치보다는 생활정치를 선택했다"면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던 역량과 중앙부처의 풍부한 인맥을 총동원해 남구 발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장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만난 남구민들로부터 파산위기에 처한 남구를 살리고, 더욱 겸손해지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다"면서 "민주당과 저를 사랑하는 애정 어린 충고를 가슴깊이 새기고 주민들을 섬기는 정치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 들어가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예산차별, 인사 차별을 타파하겠다"며 "4대 강 예산 때문에 약화한 복지분야 예산을 확충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2012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분야에서 한나라당과 차별되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광주가 정권교체의 산실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장 당선자는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의 선전은 놀라운 것이었다"면서 "오 후보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리며, 남구와 광주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곡성 출신인 장 당선자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차관·장관 등 33년 동안 예산관련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전문가다. 부인 양정수(57·수원대 교수)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개표작업 분주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28일 밤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선거종사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텃밭 광주 남구서 고전

反민주 정서 의외로 강했다

28일 치러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장병완 후보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가 비록 민주당 장병완 후보에게 패하긴 했지만, 44.1%의 득표율로 선전하면서 반 민주당 단일 후보의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투표에선 이겼지만 선거에서는 졌다'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물론 '신승'=민주당에서는 텃밭인 광주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구의원들까지 총출동해 장 후보에 대한 화력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중우세'를 보인 것을 놓고 내용상으로는 패배한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각종 공천잡음에 따른 내분으로 형성된 민주당 일당체제에 대한 반발감과 공천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의 불만이 '반(反) 민주당' 정서로 확산한 것이 이번 선거결과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똘똘 뭉쳐 '반(反) 민주당' 연대 전선을 구축, 선거를 양자 구도로 몰고가면서 민주당은 '안방'에서 선거 막판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변화보다는 인물론을 내세운 장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장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장 후보가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예산 전문가로서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점 등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낙후된 남구, 광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장 후보의 승리에는 30%를 밑도는 낮은 투표율이 말해주듯 일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민주당과 민노당의 조직대결에서 민주당 텃밭의 고정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 민주당 단일 후보 '파괴력'=이번 선거에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단일후보로 추대된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애초 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상됐지만, 오 후보가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단일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전은 민주당 우세에서 '박빙'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장병완 후보는 인물론과 지역발전론을 내걸었으나,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고전을 면치 못했고, 개표결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오 후보의 저력은 민주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오 후보는 야 4당과 진보세력, 여러 계파로 갈라졌던 남구의 민주당 조직까지 파고들며, 비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는 저돌적인 정치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파괴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재·보궐선거 등에서도 단일후보를 적극적으로 출마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병윤 후보는 "광주는 변화의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미 변하고 있다"며 "야 4당과 시민사회, 민주양심세력의 하나 된 힘은 광주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일변도의 선거판도에 변화가 일어날지,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세력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